

# 24~26일 김대중평화회의... 세계·한반도 상생 평화 비전 제시

## 목포·영암서 세계 석학·청년 모여... 학술회의·토크콘서트 등 다채

전라남도는 24일부터 3일간 영암 현대호텔과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생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2025 김대중평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김대중평화회의는 지난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남도·목포시·신안군이 공동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다.

24일 오후 3시에는 영암 호텔현대 컨벤션홀에서 개회식이 진행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지는 기조연설에선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민주주의였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음을 제시한다.

오후 7시부터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서 평화콘서트가 진행되며, '오늘의 평화, 이 어갈 평화'를 주제로 신형원, 만남중창단, 코요테, 안성훈, '너 나 우리' 진도다문화합창단, 윤선영과 오빠야, 고용준 등이 출연한다.

25~26일 국제학술회의에선 ▲트럼프 제2기:세계정책과 한반도정책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세계평화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 석학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나눈다.

25일엔 김정호 카이스트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세계 각국의 평화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평화 라운드테이블'도 열린다. 주드 랄 페르난도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 교수, 나오미 에스 LCC

인터네셔널대 교수, 헬렌 스킨슨 케이프타운대 교수, 몬티 다타 리치먼드대 교수, 김경목 와세다대 교수, 단컨 모로우 얼스터대 교수, 김동진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김대중석좌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평화회의에선 전문가 중심의 학술토론에 더해 도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토크콘서트, 청년 라운드테이블 등도 추진된다.

25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토크콘서트 '김대중 대통령을 말한다'는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회의원과 방송인 김미하, 김현중 매디치미디어대표가 출연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화 등을 들어볼 수 있다. 26일엔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청년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17~18일 열린 사전 문화공연 연극 '사형수 김대중'은 1천여 명이 관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폐회식은 26일 진행되며, 김대중학술상 및 김대중논문상 수여식이 열린다. 2025 김대중평화회의는 행사 전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제공되며, 김대중평화회의 누리집(www.kdpeaceforum)을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염선호 기자



## 남구, '부모·자녀 발명교실' 참가자 모집

### 15가정 접수... 10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5차례 운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발명 활동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한달간 진행되는 창의 과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발명교실 참가자 모집이 오는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발명교실은 창의적 발명활동을 꿈꾸는 초등학생과 부모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과 과정 연계와 더불어 초등학생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 및 탐구력을 키우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체험 학습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6년 학생 1명과 부모 1명이 함께 참여하는 조건으로, 모집 가정은 15가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남구 문화

교육행사 앱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발명교실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펼쳐진다.

발명교실 참가자들은 이 기간에 전 반사와 광섬유 이야기를 비롯해 뉴턴의 운동 법칙, 롤링 볼의 에너지 전환, 링 비행기 만들기, 오토마타의 놀라운 움직임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남구 관계자는 "현직 교사와 함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 원리로 접근하는 탐구형 과학 프로그램이다"면서 "체험 중심의 학습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증진하는데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동전통시장 내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착한쿠폰'을 발행한다.

서구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 620명에게 1인당 10만원, 총 6200만원 상당의 종이 쿠폰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쿠폰은 양동전통시장 내 175개 점

## 서구, 돌봄세대 '착한쿠폰' 6200만원 지급

### 양동전통시장 활성화·복지 동시 실현... 추석 명절 장보기 지원

포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1대1로 매칭되어 장보기를 지원한다.

앞서 서구는 지난 7월 양동전통시장에서 '광주1호 착한거리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차례에 걸쳐 400명에게 총 4000만원 규모의 착한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착한쿠폰은 매일 3만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가게' 후원금으로 발행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착한가게로 등록된 식당, 마트 등

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서구는 총 3억5000만원 규모의 쿠폰을 발행해 350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양동시장은 광주 제1호 착한시장으로, 지역경제와 나눔 복지가 함께하는 상생의 중심지"라며 "착한쿠폰이 단순한 할인쿠폰을 넘어 착한 경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무등산에 은거했던 세 인물 오방·석아·의재의 이야기를 담은 장소 특색형 연극 프로그램 '시간의 숲, 무등'을 오는 27일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 인문자원 기록 및 공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선을 보였으며, 신선한 콘셉트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 지역을 살다 간 인물들의 이야

## 동구 "무등산 춘설현에서 시간여행 떠나요!"

### 27일부터 테마형 투어 프로그램 '시간의 숲, 무등' 운영

기에 '장소 특색형 연극'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입혀 목직한 울림을 더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27일을 시작으로 10월 25일, 11월 1일 총 3회차 운영한다. 도슨트와 함께 무등산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하며 호남 최초의 여의사였던 '현덕신'의 안내로

2·8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에 항거했던 '최원순', 한센인과 빈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최홍중', 최후의 남종화가 '허백련'을 차례로 만난다. 이들은 무등산 초입에 자리 잡은 '춘설현'에 차례로 머물렀던 인물들로, 이 작은 집은 주인을 따라 그 이름도 석아

정에서 오방정, 춘설현으로 바뀌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 동구 두드림 앱 또는 광주 아트패스 누리집(www.artpass.kr)을 통해 신청(유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누리집(www.donggu.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무등산에 은거했던 세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시간의 숲, 무등'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감동의 시간을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 9일까지 총력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구청 45개 부서와 27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해 총 10개 분야 23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북구는 추석 연휴 전까지 저소득 돌봄이웃 3,934세대에 위문금과 생필품을

## 북구, 추석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 수해 피해 주민 대상 온누리 상품권 및 생필품 지원

전달하고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해 위문하는 등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살필 예정이다.

특히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십자사와 코레일 등 유관기관에서 후원받

은 4,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지급해 명절 준비를 돕는다.

주민과 귀성객 모두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1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정 조치한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해 빈틈없이 대비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중 원활한 교통상황 유지를 위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동광주 진입로, 말바우사거리, 망월공원묘지 일원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북부 모범운전자회와 협력하여 질서유지 활동에 나선다. /송현근 기자

## 강기정 시장, 글로벌 AI 선도 항저우·상하이 방문

### 광주대표단 24~27일 AI타운·화웨이 찾아 '모두의 AI' 전략 모색

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대표단이 AI 혁신정책 벤치마킹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항저우와 상하이를 공식 방문, '모두의 AI 광주' 전략을 찾는다.

24일 출국하는 광주시 대표단은 먼저 덩시크, 유니트리 등 '육소룡(六小龙)' 기업과 알리바바를 배출한 혁신도시 항저우를 찾아 AI 정책, 실증 사례, 인재양성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강기정 시장은 루산(庐山) 저장성 부상장과 과학기술청·상무청 부청장을 만나 중국정부 주도의 AI 전략과 핵심 정책을 청취하고, AI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또 광주시와 저장성 간 산업·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중국 유일의 디지털산업 국

가급 전시회인 '항저우 디지털 무역 박람회'에 참석해 글로벌 테크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어 저장대학교를 방문해 기술 엘리트 육성 시스템과 대학중심 창업 생태계를 벤치마킹하고, 창업경진대회 공동 개최 등 협력사업을 제안한다.

대표단은 또 항저우 AI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인 정부주도형 '항저우 AI컴퓨팅센터'와 'AI타운'을 방문해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AX 실증밸리' 조성 등 '모두의 AI 광주'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대표단은 중국 AI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상하이 화웨이 렌추후 R&D센터를 방문해 대규모 연구개발 거점의 인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직접 살펴본다. 이어 왕범(汪凡) 한국화웨이 지사장 등 화웨이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첨단3지구 AI 생태계의 비전과 미래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